

2019학년도 수능 단기생윤 3월 학평대비 모의고사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1

1.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판정하고 평가하는 척도나 원리를 제시하여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을: 윤리학은 도덕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여 생활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써야 한다.
 병: 윤리학은 실천적 언어가 결합된 도덕적 명제의 논리적 타당성을 규명하고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실제 사용된 언어들의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보기>

- ㄱ. 갑은 윤리학은 실천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순수 이론 학문과 구분되고 본다.
- ㄴ. 을은 도덕적 원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시한다.
- ㄷ. 병은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의 의미론적인 구조 분석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병과 달리 도덕적 논의에서 사실 판단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친한 이를 친애하는 것은 셋으로 다섯이 되고 다섯으로 아홉이 되니, 위를 줄이고 아래를 줄이며 옆을 줄여 친함이 끝나게 된다.
(나)	㉠은/는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은 존재이며,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이다 [手足之義]. 상대방이 좋지 못한 행실을 하면 마땅히 정성을 다해 충고해서 올바른 도리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

- ① 서로의 우애를 통해서 인격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선택적인 관계이다.
- ② 생명을 주고 받음으로써 생겨났으며 친애가 중시되는 수직적인 관계이다.
- ③ 서로 사랑하며 함께 놀이를 하는 친구이자 문제 해결의 협력자 관계이다.
- ④ 상호 보완적이고 대등한 관계로서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 ⑤ 상대방이 삶의 고통을 겪을 경우 할반지통(割半之痛)을 느끼는 관계이다.

3. 다음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현대의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는 너무나 새롭고, 그 대상과 결과가 너무나 새로운 것이므로 인간 사이의 관계에 한정되고 단기적인 예견에 토대를 둔 전통 윤리들로는 이 행위들을 더 이상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지구 전체 생명에 대해 권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① 과학 기술의 발전은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구해야 하는가?
- ② 미래의 장기적 긍정성이 단기적 부정성보다 더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인가?
- ③ 현대의 기술이 유발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윤리학은 한계가 있는가?
- ④ 악의 현존은 우리에게 인식을 강요하므로 선보다 악의 인식이 더 쉬운가?
- 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해서 일방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가?

4. 갑, 을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즐겁게 된다. 이것은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의 삶을 보태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
 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를 일컬어 인연법(因緣法)이라고 한다. 삶이 있으므로 늙음과 죽음이 있고, 삶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이 없다.

<보기>

- ㄱ. 갑은 불멸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날 때 사후 세계의 행복이 실현된다고 본다.
- ㄴ. 을은 내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세에서의 도덕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 ㄷ. 갑과 을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며 회피하려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 ㄹ. 을은 갑과 달리 죽음은 감각이 아니라 번뇌가 소멸되는 현상이라고 간주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5.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한 행위는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위반하면 그르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바로 유용성이다.
 (나) 유용성의 원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각각 대안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옳은 행위란 다른 어떤 가능한 행위보다 더 큰 유용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된다.

- ① (가): 보편적 도덕 법칙을 준수하려는 의무감이 행위의 결과보다 중요하다.
- ② (가): “A이면 B하라”라는 형식으로 된 명법은 행위 규칙에서 제외해야 한다.
- ③ (나): 개별 행위의 유용성을 계산할 때에는 도덕적인 직관을 활용해야 한다.
- ④ (나): 개별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고통은 유용성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⑤ (가), (나): 도덕과 입법의 원리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삼아야 한다.

6.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인간의 성(性)은 사랑을 통해 동물적 차원을 벗어나서 인격적 차원으로 고양된다. 사랑은 인간의 성이 도덕적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을: 인간의 성은 사랑하는 남녀가 혼인이라는 사회적 승인을 거쳐 출산과 관련해 이루어질 때 정당화된다.
 병: 인간의 성은 쾌락 추구 그 자체가 목적이다. 성적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유로운 성적 쾌락 추구를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보기>

- ㄱ. 갑은 사랑이 있어야만 성적인 관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ㄴ. 을은 혼인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성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 ㄷ. 병은 성을 통한 쾌락 그 자체를 추구하면서 어떠한 제약도 인정하지 않는다.
- ㄹ. 갑, 을, 병은 모두 성적인 쾌락이 그 자체로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세속적 의무의 이행은 모든 경우에 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만이 신의 뜻이고, 따라서 허용된 모든 직업은 신 앞에서 단적으로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을: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勞心],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勞力]. 백성은 항산(恒産)이 없다면 항심(恒心)도 없게 된다.
 병: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일어난다.

- ① 갑은 노동은 신의 명령이며 부의 축적은 구원 가능성의 간접적 증표라고 본다.
- ② 을은 세습적인 신분에서 비롯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 ③ 병은 자본주의적인 분업 노동은 노동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직업적 노동과 도덕적 가치의 실현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 ⑤ 을은 분업에 의해 형성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병은 착취적 관계에 주목한다.

8. 갑, 을, 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람들은 사회 협동체를 통해서 모두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래서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된다.
 을: 국가에 관한 주된 우리의 결론은 강요, 절도, 사기, 계약의 강제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좁은 기능들에 제한된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는 것이다.
 병: 특수적 정의의 하나로 이것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나눌 수 있는 명예 혹은 부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의 분배에 관련된 것으로 각 개인의 가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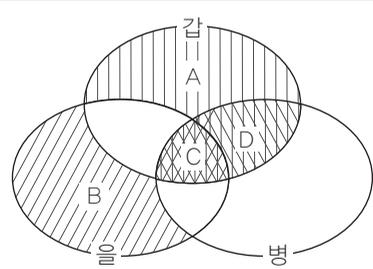
- ① 갑: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이 균등하게 증가되어야 한다.
- ② 을: 개인 간의 계약 이행에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
- ③ 병: 일반적 정의를 위해서 기하학적인 비례의 원칙에 따라 분배를 해야 한다.
- ④ 갑, 을: 능력이나 업적을 단일 기준으로 하는 분배는 정의롭다고 볼 수 없다.
- ⑤ 을, 병: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에 해당되지 않는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기본적으로 불복종이란 합의된 정의관에서 벗어난 법이나 제도, 정책에 대하여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을: 단체에는 양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양심을 가진 단체이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이 없다.

- ① 갑: 합의된 정의의 모든 원칙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 ② 갑: 다수결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을: 부정의한 법률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불복종이 아니라 강제력이 필요하다.
- ④ 을: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률에 즉시 불복종을 하고 처벌을 수용해야 한다.
- ⑤ 갑, 을: 부정의한 체제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아니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생명체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 지어진 유기체의 작용이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p> <p>을: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고,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가지고 행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등을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p> <p>병: 윤리의 확장은 생태학적 진화의 과정이며, 생태계 모든 구성원들의 공생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의 윤리인 대지의 윤리에 이르게 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을만의 입장</p> <p>C: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p>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div>

<보기>

- ㄱ. A: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 ㄴ. B: 쾌고감수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 ㄷ. C: 인간은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이다.
- ㄹ. D: 자연적 생태 체계들은 긴밀하고 복잡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p> <p>을: 범죄 예방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強度)가 아니라 그 지속성이다. 범죄자의 사형 장면을 보는 것은 종신형과는 달리 범죄 억제에 일시적인 효과만을 갖는다.</p> <p>병: 모든 형벌은 강도, 지속성, 보편성을 근거로 과도하지 않게 집행되어야 한다.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로 삼아 전체의 효용을 증진하는 것이다.</p>
(나)	<div style="text-align: right;">(범례)</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탐구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 출발 조건</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A</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B</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C</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D</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갑의 입장</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을의 입장</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병의 입장</div> </div>

<보기>

- ㄱ. A : 사회적 선을 증진하는 효과가 없는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가?
- ㄴ. B : 사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정될 수 없는가?
- ㄷ. C : 형벌은 범죄자에게는 본보기, 일반인에게는 교화의 효과를 지니는가?
- ㄹ. D : 사회의 최대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한 형벌은 정당한 것인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갑, 을이 같은 입장을 표명할 서술에 해당되는 것은?

갑: 과학자는 사실 인식과 가치 판단을 구별하여 연구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과학 지식의 활용에 대한 책임은 활용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을: 과학적 발견이 지식으로 인정받는 과정에는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과학자는 과학적 지식의 활용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①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
- ② 과학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물어야 한다.
- ③ 과학 연구를 참과 거짓의 인식론적 활동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④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해서까지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 ⑤ 과학 지식의 타당성을 검증할 때에만 가치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개인으로서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인종적, 경제적, 국가적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그들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 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은 개인의 도덕성에 배타적인가?
- ②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집단 간 힘의 균형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가?
- ③ 개인의 도덕적인 이상과 집단의 도덕적인 이상은 절대적 모순 관계인가?
- ④ 한 사회의 도덕성은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도덕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 ⑤ 양심적인 사람들이 승인하지 않을 방법은 정의 실현에 적합하지 않은가?

14.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불리한 여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가 있다면 그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원조를 해야 한다.

을: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상당한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야 마땅하듯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야 한다.

병: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희생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타인을 도울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 ① 갑: 비민주적이면서 타국에 대해 공격적이지 않은 사회가 원조의 대상이다.
- ② 을: 지구촌의 모든 빈곤한 사람들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누려야 한다.
- ③ 병: 전 세계의 빈곤자에 대한 원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
- ④ 갑, 을: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해외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해야 한다.
- ⑤ 을, 병: 모든 국가의 복지 및 부의 수준을 일치시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15. 다음 사상의 관점에서 지지할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성은 스스로를 가능한 한 특수한 상황에 두고 도덕 문제에 접근하며, 자신을 배려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배려자의 입장에서 행동한다. 배려의 감정은 우리가 타인을 배려해 주고 타인으로부터 배려 받았던 기억들에 의해 촉진된다. 배려에 바탕을 둔 윤리는 독립적 자아관에서 벗어나 상호 연관적 자아관을 지닌다.

<보기>

- ㄱ. 구체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추상적인 원리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
- ㄴ. 공정성과 보편성의 실현을 위해 자연적인 배려심을 발휘해야 한다.
- ㄷ. 여성 중심적 윤리와 남성 중심적 윤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 ㄹ. 당면한 윤리 문제의 구체적인 맥락과 인간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6. 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특정 모델의 관점에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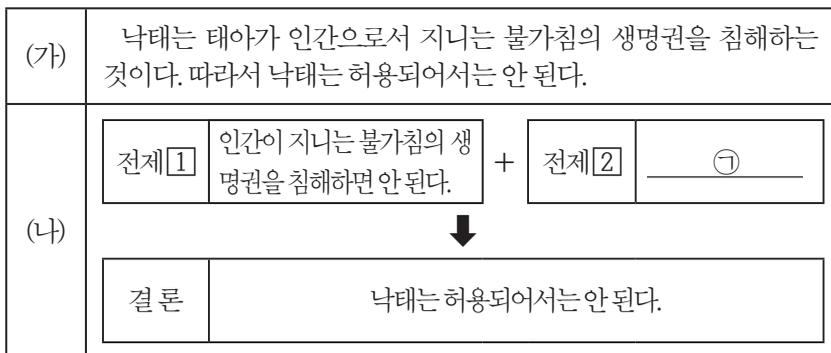
	질문	응답	
		예	아니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으로 사회적 통합을 추구해야 하는가?	✓	
(2)	다양한 문화가 지니는 특성을 평등하게 인정해야 하는가?	✓	
(3)	㉠	✓	
(4)	㉡		✓

<보기>

- ㄱ. ㉠ :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각 문화의 대등한 공존이 필요한가?
- ㄴ. ㉠ : 이민자는 자발적으로 주류 문화로의 동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 ㄷ. ㉡ : 다양한 문화적인 관습의 공존은 사회적인 통합을 저해하는가?
- ㄹ. ㉡ :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장려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무고한 존재인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살인과 같은 비도덕적 행위이다.
- ② 자기방어와 정당방위를 위해 여성은 정당하게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
- ③ 태아가 가진 생명권을 임신부의 권리와 동등하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
- ④ 출생 이전의 태아는 아직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 ⑤ 수정되는 순간부터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인간의 삶이 시작된다.

18.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음악은 성현이 즐기는 바로서, 이것으로 민심을 선도할 수 있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풍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이 예악(禮樂)으로 인도하면 백성이 화목해진다.
 을: 문화산업은 대중을 통제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한다. 개인은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경제적·사회적 장치의 산물이다. 문화산업이 독점한 대중 예술은 개인의 특성을 획일화하여 자신의 논리를 관철한다.

- ① 갑은 예술적 완성도는 도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목적에 종속된다고 본다.
- ② 을은 문화 산업에 의한 대중 문화는 획일성을 강화하는 도구라고 비판한다.
- ③ 갑과 을은 모두 예술이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 ④ 갑은 을과 달리 예술 작품에 지배적인 이념이 투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⑤ 갑은 을과 같이 예술과 권력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19. 다음 글의 갑~정 중 적어도 3명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발생하는 악성 댓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은 자율적 규제와 제도적 규제의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명의 입장이 가능하다.

	자율적 규제	제도적 규제
갑	필요 있음	필요 있음
을	필요 있음	필요 없음
병	필요 없음	필요 있음
정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기>

- ㄱ. 악성 댓글 해결을 위한 자율적 규제는 필수적인 요소인가?
- ㄴ. 악성 댓글 해결을 위해 자율과 강제가 병행되어야 하는가?
- ㄷ. 악성 댓글 해결을 위해서 자율적 규제만 시행하면 되는가?
- ㄹ. 악성 댓글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규제는 불필요한 요소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국제 정치는 힘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다. 전쟁은 자국의 안보와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국제적 수준에서는 도덕성이 적용될 수 없다.
 을: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전쟁의 목적은 침략 행위나 불법 행위를 저지함으로써 평화를 수호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

- ① 갑: 국가 간 세력 균형이 아니라 신뢰 구축으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 ② 갑: 자국의 이익과 관련이 없어도 인도주의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다.
- ③ 을: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상비군의 점진적인 폐지가 필요하다.
- ④ 을: 전쟁이 비록 부당하게 개시되었다 해도 정당하게 종식될 수는 있다.
- ⑤ 갑, 을: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한 무력 사용은 방어적 형태만 인정된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19학년도 수능 단기생은 3월 학평대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생활과 윤리]

1	④	2	③	3	②	4	②	5	⑤
6	①	7	②	8	④	9	③	10	⑤
11	③	12	⑤	13	②	14	②	15	③
16	②	17	④	18	⑤	19	③	20	④

1. ④

[각 윤리학의 특성에 대한 이해]

갑은 이론 규범 윤리학, 을은 응용 규범 윤리학, 병은 메타 윤리학의 관점이다.

ㄱ. 이론 윤리학은 도덕적인 원리를 연구하고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 내는 것을 중시한다. 따라서 윤리학이 실천 지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순수 이론 학문과는 구분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이 선택지는 수능특강 18P 5번 문제의 ②번으로 출제된 것으로 실천 지향성은 응용규범 윤리학만 갖는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선택지이다.

ㄴ. 을은 응용 윤리학으로 도덕적 원리를 활용한 구체적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ㄷ. 병은 메타 윤리학으로서 도덕적 용어들의 개념 분석, 도덕 판단의 타당성 입증, 도덕적 논의의 의미론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간주한다.

ㄹ.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의 경험적인 검증 중시하므로 사실 판단을 인정하며, 규범 윤리학도 도덕적 명제가 당위 명제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윤리적 추론의 과정에서 대전제인 도덕 원리와 소전제인 사실 판단을 결합하여 도덕적 결론을 도출한다. 따라서 도덕적 논의에서 사실 판단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갑, 을, 병이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2. ③

[형제 자매의 윤리]

먼저 수족지(手足之義)가 형제자매 관계를 지칭하는 사자성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권면의 덕목은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관계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①은 친구관계, ②는 부모자녀관계, ③은 형제자매관계, ④는 부부관계에 대한 서술이다. 매력적 오답은 ⑤번으로 할반지통(割半之痛)은 몸의 반쪽을 베어내는 고통이라는 뜻으로, 형제자매를 잃은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3. ②

[요나스의 책임 윤리]

요나스는 부정의 예측술을 발휘하여 미래의 긍정적 현상보다 부정적 현상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단기적인 예측보다 장기적인 예측을 중시하는데 이 또한 장기적인 부정성을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②번은 (장기적) 긍정성을 (단기적) 부정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잘못된 서술이다. 그리고 요나스는 현대의 과학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여 ③ 기존의 윤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윤리적 공백이 발생했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책임 윤리를 도입하

여 ⑤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한 일방적 책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지구상에 인류가 존속해야 한다는 정언 명령의 수행을 위해서 ①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학 기술을 이용해야 하며, ④ 선보다 악을 더 인식하기 쉬우므로 부정의 예측술을 발휘하여 부정적인 현상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②

[죽음에 대한 에피쿠로스파와 불교의 입장]

갑은 죽음은 감각이 소멸되는 것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진정한 쾌락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에피쿠로스, 을은 삶과 죽음은 연결된 순환과정이라는 불교의 관점이다. ㄱ. 갑은 죽음은 감각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간주하며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ㄴ. 번뇌가 소멸되는 현상은 해탈이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생로병사가 순환되는 윤회의 과정일 뿐이며,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번뇌는 소멸되지 않는다.

5. ⑤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에 대한 이해]

(가)는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이며 을은 행위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⑤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모두 유용성의 원리를 추구하므로 공통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적 원리로 인정한다. ① 보편적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으로 이것을 준수하려는 의무감을 중시하는 것은 칸트이다. ② 규칙 공리주의는 유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행위 규칙이므로 조건적 명령, 즉 가언 명령 형태의 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행위 공리주의는 도덕적 직관과 충돌할 때 유용성 판단을 따른다. ④ 개별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고통과 쾌락을 합하여 유용성을 계산하므로 고통도 유용성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6. ①

[성과 사랑의 윤리에 대한 이해]

갑은 사랑에 기반한 인격적 가치를 중시하는 중도주의, 을은 가족 구성원의 재생산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병은 쾌락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이다. ㄴ. 자유주의는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적 쾌락의 추구를 인정한다. ㄹ. 갑은 사랑이 동반될 때에만 성적 관계가 인정되며, 을은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한다.

7. ②

[직업에 대한 사상가들의 견해 비교]

갑은 인간의 직업이 신의 부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는 소명설을 주장한 칼뱅, 을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한 덕과 재능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수행을 중시하는 맹자, 병은 자본주의적 분업 구조를 비판하는 마르크스이다. ② 맹자는 후천적으로 형성한 덕과 재능에 따른 역할 분담을 추구하는 입장으로 세습적인 신분제에 따른 역할 부담을 비판한다. ① 칼뱅에 따르면 구원여부는 결정되어 있으므로 직업적 성공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직업적인 성공은 구원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 지표로 간주한다. ④ 갑은 직업적 노동은 신의 소명을 수행하는 도덕적인 행위이며, 을은 직업을 통한 경제 기반이 형성되어야 도덕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⑤ 을은 분업에 대한 긍정적 입장, 병은 부정적 입장이다.

8. ④

[분배 정의에 대한 관점 비교]

갑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롤스, 을은 소유권의 절대화를 추구하는 노직, 병은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④ 롤스와 노직은 모두 능력이나 업적을 단일 기준으로 하는 분배를 부정한다. 롤스는 기회는 균등의 원칙, 재화의 분배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분배의 단일 기준을 반대하며, 노직은 소유권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분배기준을 중시하기 때문에 분배의 단일 기준을 반대한다. ①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익이 증대되면서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실현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이익이 균등하게 증가하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② 최소 국가의 재산이나 인권의 보호, 계약 집행의 감독을 담당한다. 따라서 개인 간의 계약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분배는 특수적 정의에 해당한다. ⑤ 노직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정의로운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9. ③

[시민 불복종에 대한 이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로 다수의 정의관을 제시하는 갑은 롤스, 양심을 제시하는 을은 소로이다. 을은 율해 수능 특강에 수록된 제시문으로 첫 문장에 현혹되면 니부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양심을 가진 단체라는 표현에서 니부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양심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소로라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 ③ 소로는 부정의한 법률의 변혁을 위한 외적 강제력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① 롤스는 정의의 원칙 중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을 침해할 때 시민의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차등의 원칙 침해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다수결에 의한 결정, 다수의 여론에 의한 결정은 다수의 정의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수의 정의관은 자신의 율불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한 정의관을 의미한다. ④ 소로는 즉각적 불복종과 처벌에 대한 수용을 주장한다. ⑤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부정의한 법률과 정책의 변혁으로 한정된다.

10. ⑤

[환경 윤리에 대한 이해]

갑은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테일러, 을은 성장한 포유류가 가진 도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레건, 병은 대지 윤리를 주장한 레오폴드이다. 이러한 벤다이어그램 유형은 교집합의 타당성부터 판단하는 것이 좋다.

ㄴ. 인간은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라는 것은 모든 사상가가 인정하는 공통전제이다. ㄷ.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자로서 개체론에 기반하고 있지만 자연적 생태 체계들이 긴밀하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따라서 갑인 테일러와 병인 레오폴드의 공통 입장으로 타당하다. ㄹ과 ㄴ이 모두 맞는 서술이므로 ㄴ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정답이 결정된다.

ㄴ. 레건은 도덕적 고려의 필요조건으로서 쾌고 감수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동물이어야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레건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테일러인 갑은 식물, 레오폴드인 병은 무생물도 도덕적 고려

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ㄱ.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서술은 테일러 뿐만 아니라 레오폴드도 동의한다. 따라서 갑만의 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11. ③

[사형제에 대한 입장 비교]

갑은 동해 보복적 응보를 주장한 칸트, 을은 예방론의 관점에서 사형제에 반대하는 베카리아, 병은 예방론의 관점에서 사형제에 대한 조건부 찬성의 입장인 벤담이다. 플로우차트형 문제도 1명의 사상가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D, C의 타당성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B, A의 순서로 타당성을 판단하는 문제 풀이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ㄴ. 비례성의 원칙은 형벌론의 공통적인 전제이다. 벤담이 사회의 최대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한 형벌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2018학년도 6월 모평 19번의 을 제시문에 서술되어 있다.

ㄷ. 형벌은 범죄자의 교화와 일반인에 대한 본보기 효과를 위한 것이다. 선택지는 범죄자에 대한 본보기, 일반인에 대한 교화 효과라고 서술하여 착각을 유도한 것이다.

ㄹ. 베카리아와 벤담은 모두 형벌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필요악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베카리아의 경우 사형에 반대하므로 사형은 필요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ㄴ의 서술에 대해서 을은 인정, 병은 부정의 대답을 하므로 타당한 서술이다.

ㄱ. 칸트는 사회적인 선의 증진, 즉 공리의 증진과 무관하게 범죄자에 대한 응보적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갑은 부정, 을과 병은 긍정하는 서술이다.

12. ⑤

[과학 연구 결과에 대한 과학자의 책임]

갑은 과학자의 연구 과정에 대한 책임만 인정하며,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과학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을은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과학자의 책임까지 인정한다. 그리고 문제는 같은 입장을 표명할 주장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것이므로 둘 다 인정하거나 둘 다 부정하는 주장을 찾으면 된다.

① 갑은 부정, 을은 긍정할 주장이다. ② 갑은 긍정, 을은 부정할 주장이다. ③ 갑은 부정, 을은 긍정할 주장이다. ④ 갑은 부정, 을은 긍정할 주장이다. ⑤ 갑과 을이 모두 긍정할 주장이다. 갑과 을은 모두 과학 연구 활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므로 지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에서만 가치 중립성을 추구한다. 다만 갑은 사용자의 책임만 인정하는 반면 을은 과학자의 책임까지 인정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13. ②

[니부어의 사회 윤리]

제시문의 사상가는 사회 윤리를 강조한 니부어이다. ② 니부어는 집단간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부정의가 지속된다고 보며 외적 강제력을 활용한 힘의 균형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① 외적 강제력과 개인의 도덕성 함양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외적 강제력이 개인의 도덕성에 배타적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개인과 집단의 도덕적 이상은 여간해서는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 갈등 관계이지만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절대적 모순 관계는 아니다. ④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은 비례

관계나 환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⑤ 양심적인 사람들이 승인하지 않을 방법은 비양심적인 방법이 아니라 외적 강제력이다. 외적 강제력은 사회 정의 실현에 필요하다는 것이 니부어의 입장이다.

14. ②

[해외 원조에 관한 입장 비교 이해]

갑은 질서 정연한 사회를 위한 원조 의무를 강조하는 롤스, 을은 전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한 원조 의무를 강조하는 싱어, 병은 해외 원조 의무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노직이다. ②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기반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①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의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고통받는 사회는 인권 보장이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국가에 대해 공격적이지 않은 사회를 지칭한다. 즉 비민주적인 사회이지만 타 국가에 대해 공격성을 가진 국가는 고통받는 사회가 아니라 무법 국가에 해당한다. ③ 노직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해외 원조는 인정한다. ④ 롤스와 싱어는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해외 원조는 보편적인 의무로 간주한다. ⑤ 을과 병은 모든 국가의 복지 및 부의 수준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15. ③

[배려 윤리에 대한 이해]

정의, 이성, 공정성, 보편성을 추구하는 정의 윤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배려 윤리는 배려, 공감, 유대감, 책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배려 윤리는 맥락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며, 정의 중심의 추상적 도덕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ㄱ. 배려 윤리는 추상적인 원리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중시한다.

ㄴ. 공정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은 정의 윤리이다. ㄷ. 배려 윤리와 정의 윤리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ㄹ. 배려 윤리는 구체적 맥락과 인간 관계를 중시한다.

16. ②

[다문화 사회의 운영 모델에 대한 이해]

(1)과 (2)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의 대등한 공존을 추구하는 샐러드 모형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을 찾을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에는 샐러드 모형이 예라고 답변할 질문, ㉡에는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이 와야 한다는 것이다. ㄱ. 각 문화의 대등한 공존은 샐러드 모델에 부합한다. ㄴ. 주류 문화로의 동화는 동화주의 모델이다. 따라서 ㉠에 적합한 것은 ㄱ이다. ㄷ. 샐러드 모델은 다양한 문화적 규범이나 관습의 공존은 사회적인 통합에 기여한다고 본다. ㄹ. 샐러드 모델은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장려한다. 따라서 ㉡은 샐러드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이므로 ㄷ이 ㉡에 해당한다.

17. ④

[낙태에 대한 쟁점 파악]

삼단 논법의 문제에서 전제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는 일단 결론과 같은 입장을 제거하면 된다. 왜냐하면 결론과 전제는 논리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결론과 같은 입장이라면 절대로 전제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낙태에 대한 반대론인 ①, ③, ⑤번

은 결론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정답의 후보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으로 남은 ②번과 ④번 중에서 전제 2에 해당하는 내용과 반대의 내용을 찾으면 된다. 보통 전제 1과 전제 2로 구성된 문제의 경우 전제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전제 2에 해당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 전제 1을 제외하면 태아가 인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부정하는 서술은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④번이 정답이다.

18. ⑤

[예술에 대한 견해 비교]

갑은 음악을 통한 교화를 추구하는 유가의 입장, 을은 대중 문화가 지배 이념을 주입한다고 비판하는 아도르노의 입장이다. ⑤ 갑은 예술과 권력의 상호 연관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을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① 갑은 예술이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예술적 완성도는 도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② 을은 대중 문화가 표준화, 획일화를 강요한다고 비판한다. ③ 갑은 예술을 이용한 통치를 긍정하며, 을은 부정한다. 둘은 모두 예술이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④ 갑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민심을 선도하고 풍속을 변화시키는 것을 긍정하지만 을은 예술 작품이 지배계급의 이념을 재생산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19. ③

[정보 사회의 윤리에 대한 이해]

이 문제는 2016년 9월 모평에서 처음으로 출제된 신 유형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3명이 부정하는 질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서는 자율적 규제와 제도적 규제를 모두 언급하면 반드시 세 명이 부정을 하게 된다는 수학적 원리를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자율적 규제와 제도적 규제 중에서 한 가지만 언급하면 2명만 부정하게 된다.

ㄱ. 자율적 규제만 언급하고 있으며 자율적 규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병과 정만 부정한다. ㄴ. 자율과 강제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갑만의 입장으로 을, 병, 정은 모두 부정한다. ㄷ. 자율적 규제만 시행하면 된다는 것은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을의 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 병, 정이 부정한다. ㄹ. 제도적 규제만 언급하고 있으며 필요성을 부정하므로 을과 정의 입장이며 갑과 병만 부정하는 질문이다.

20. ④

[전쟁에 대한 다양한 견해]

갑은 세력 균형을 중시하며 국익을 위한 모든 형태의 전쟁을 인정하는 현실주의, 을은 정의로운 전쟁을 중시하며 방어적 전쟁과 인도주의적 개입을 인정하는 정의 전쟁론이다. ④ 정의 전쟁론은 전쟁의 개시, 수행, 종식의 단계별로 정당성을 별도로 평가한다. 따라서 전쟁이 부당하게 개시되었더라도 정당하게 종식될 수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① 국가 간 신뢰 구축은 칸트의 이상주의에 해당한다. ② 갑은 전쟁은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익과 무관하게 전쟁을 하는 것을 부정한다. ③ 상비군의 점진적 폐지를 추구하는 것은 칸트의 이상주의에 해당한다. ⑤ 갑은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한 침략적 전쟁도 정당하다고 본다.